

유씨삼대록, 겸산 유숙기, 그리고 완산 이씨

Korean Old Novel *Yussi-Samdaerok*, *Yu Suk-gi*, and His Wife Lady Lee

이윤석*

국문요약 유숙기(兪肅基, 1696~1752)는 높은 벼슬을 했거나, 또는 뛰어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인물은 아니다. 이처럼 그는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낮은 벼슬을 하면서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후세에 청백리로 선발되었고,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는 한글소설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물이 되었는데, 1746년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제문에서 한글소설 <유씨삼대록>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유숙기는 아내의 제문에서, 아내가 소설에 나오는 인물과 자기 조카를 비교해서 얘기했다는 사실을 써놓았다. 이 기록은, <유씨삼대록>이 1746년 이전에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이다. 그런데 18세기 전반까지의 고소설 관련 자료는 매우 적으므로, 이 자료는 앞으로 연구자들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유숙기가 쓴 두 편의 제문을 번역했는데, 연구자들이 제문의 전체 내용을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몇 가지 추론을 통해, 18세기 전반까지 고소설을 읽을 수 있는 계층은 왕실과 가까운 사대부 집안의 여성일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핵심어 고소설, 유씨삼대록, 유숙기(兪肅基), 유숙기의 아내 완산 이씨(1697~1746), 유숙기의 조카 유언순(兪彦淳, 1715~1748)

- 차례**
1. 서언
 2. 두 편의 제문
 3. 유숙기 제문의 특징
 4. 허구와 현실
 5. 결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소설 연구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연구자들이 포기한 주제가 된 느낌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고소설 작품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을 고소설 연구자들이 해내지 못한다면, 고소설 연구는 고소설의 역사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는 파편적 기술에 불과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고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가 고소설 연구가 아니라 고소설 비평이 되는 이유는, 아직 고소설의 역사를 기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소설이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탄생했고, 또 그 흐름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알아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18세기 중반 이후 서울에서 세책집이 나타나고, 19세기

1. 서언

한글로 쓴 고소설의 작자와 창작시기를 알 수 있는 작품이 없고,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없으므로, 고소설사의 기술은 아직도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¹ 상황이 이런데도 고소설사를

1. 동아일보 연재 『조선소설사』(1930년 10월 31일~1931년 2월 14일)
2. 청진서관 발행 『조선소설사』(1933년)
3. 학예사 발행 <증보조선소설사>(1939년)

* 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는 세 개의 버전이 있다.

전반부터 서울과 전주에서 방각본 소설이 나왔으며, 20세기 초에 활판본 고소설이 등장하여 고소설이 그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정도는 현재 어느 정도 알려졌다. 그러나 18세기 중반까지 고소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 고소설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각종 자료에서 고소설 관련 문구를 찾아내어 이를 바탕으로 고소설에 관한 이해를 넓혔다. 이런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집 가운데 최근에 나온 것도 이미 20년 전이다.²

근래에 고소설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일 것이다. 이곳에는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또 계속 새로운 자료가 올라오니까, 개인 연구자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넘어서는 자료를 보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고전종합DB’에도 고소설과 관련된 자료는 별로 많지 않고, 특히 고소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7세기의 자료는 매우 적다. 최근 필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17세기 자료 둘을 보았는데,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 1625~1707)의 『우담집(愚潭集)』과 정암(貞菴) 민우수(閔遇洙, 1694~1756)의 『정암집(貞菴集)』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정시한의 문집에 “어려서 피를 토하여 독서를 할 수 없게 되어 잡서(雜書)를 보았는데, 언문소설까지도 많이 읽어서 마음에 가로놓여 있었다. ‘잡서를 보지 말라. 정력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조금 본 바로는 괴이한 데가 많았다(少時吐血 不能讀書 聚見雜書. 至於諺文小說 亦多留眼 而橫在肚裏. 所謂勿觀雜書 恐分精力者爲此也. 雖然 少所見多所怪也)”라는 내용이 있다. 정시한의 연보에 의하면, 그는 16세 때 피를 토하는 병에 걸려, 약 10년 후에 병이 나았다고 한다. 연보의 내용대로라면, 정시한은 1640년부터 약 10년 동안 피를 토하는 증세가 있었고, 이 기간에 언문소설을 본 것이다. 이 자료에 소설의 제목은

나오지 않으므로, 그가 읽은 ‘언문소설’이 어떤 작품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17세기 중반에 한글로 쓴 소설을 읽었다는 기록을 하나 더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³

그리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자료로 『정암집』 제10권에 들어 있는 「고모 유인 민씨 묘지(姑母孀人閔氏墓誌)」가 있다.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2』에서 소개한 「여흥민씨가승기략(驪興閔氏家乘紀略)」을 쓴 민익수(閔翼洙)의 동생 민우수가 쓴 글인데, 고모에 관한 내용에 한글소설 관련 기록이 들어 있다. 민우수의 고모(1678~1741)는 민유중(閔維重, 1630~1687)의 딸로 이선(李選, 1631~1692)의 아들 이장휘(李長輝, 1675~1707)와 혼인하였다. 이장휘의 어머니 황부인은 황일호(黃一皓, 1588~1641)의 딸인데, 황부인은 늙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여 패설로 시름을 달랬다고 한다. 이장휘가 어머니 곁에서 패설을 읽어드렸고, 그의 부인(민우수의 고모)도 남편을 대신해서 자주 읽어드렸다고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빌리기 어려운 책은 고모가 밤새도록 베껴서 눈병이 날 정도였다니, 상당히 많은 양을 필사했음을 알 수 있다. 황부인은 1635년에서 1637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므로,⁴ 이 자료를 통해 17세기 후반에 상당량의 한글소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한글소설 관련 자료는 아니지만, 한글소설 작품의 이름이 나오는 기록으로 겸산(兼山) 유숙기(兪肅基, 1696~1752)의 『겸산집(兼山集)』이 있다. 유숙기의 문집 『겸산집』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 완산 이씨(1697~1746)의 장례와 탈상 때 유숙기가 쓴 두 편의 제문이 있는데, 그중 탈상 때 쓴 제문에 <유씨삼대록>과 관련

3 이 내용은 『우담집』 제10권에 들어 있는데, 정시한의 문인 조연(趙沆)이 스승에 대해서 쓴 것이다. 정시한 사후의 저술이지만, 어렸을 때의 일화를 소개한 것이므로 17세기 한글소설 자료로 볼 수 있다.

4 황부인은 아버지 황일호의 세 번째 부인 소생인데, 황일호가 1641년에 세상을 떠났고, 황부인의 여동생이 있다고 했으므로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이선의 첫 부인은 1654년에 죽었고, 황부인과는 1657년에 혼인했다(『지호집(芝湖集)』 제12권 「지소행장일사(芝所行狀逸事)」). 1664년 이선이 쓴 선고(先考)의 행장에, 자신의 재취 부인이 낳은 아들 둘은 죽고 딸은 어리다고 했다.

2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1』, 태학사, 2001;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2』, 이화, 2005.

된 내용이 들어 있다. 완산 이씨가 <유씨삼대록>에 등장하는 인물 유백경을 유숙기의 조카 유언순과 비교했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이미 고소설 연구자들이 다룬 바 있다.⁵ 『겸산집』의 <유씨삼대록> 관련 기록은 고소설 연구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자료인데, 두세 명의 연구자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품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했고, 또 소설의 등장인물을 현실의 인물과 비교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겸산집』의 <유씨삼대록> 관련 기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하는데, 완산 이씨가 <유씨삼대록>을 읽은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완산 이씨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완산 이씨가 남긴 기록은 없으므로, 그의 남편 유숙기가 남긴 기록 속에서 완산 이씨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유숙기가 쓴 두 편의 제문은 상당히 길고, 그 안에는 완산 이씨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들어 있다. 『겸산집』은 아직 번역되지 않았고, 유숙기가 쓴 두 편의 제문도 전체를 번역한 것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고소설의 중요한 자료인 유숙기가 쓴 두 편의 제문을 연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을 번역했다.⁶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의 사대부들은 여성의 한글소설 독서를 그리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숙기는 1748년에 쓴 아내의 제문에서 아내가 소설을 읽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제문에는 당시 한 사대부와 그의 아내 사이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들어 있어서, 이 자료는 소설 연구뿐만 아니라 당대 사대부 집안 여성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는 데도 참고할 수 있다.

여성의 독서에 관한 내용은 여러 종류의 글에 나오지만, 특히 죽은 여성을 기리는 글 속에서 자주 보인다. 이런 글에 나타나는 여성의 독서는 특정한 몇몇 책에 한정되어 있고, 그런 책은 대상 여성의 덕성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등장한다. 유숙기의 제문은 죽은 아내를 기린다는 면에서는 같은 성격을 가졌지만, 아내와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자세히 써놓음으로써 아내가 어떤 인물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18세기 초의 고소설 관련 자료는 매우 희귀하므로, 『겸산집』의 <유씨삼대록> 관련 자료는 정말로 귀중하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세밀하게 이 『겸산집』에 들어 있는 내용을 분석하여, 고소설사를 엮어낼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두 편의 제문 번역과 함께, 완산 이씨가 언급한 <유씨삼대록>의 등장인물 유백경에 대해 살펴보고, 또 소설 속의 인물 유백경과 비교한 유숙기의 조카 유언순에 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2. 두 편의 제문

유숙기는 숙종 22년(1696)에 태어났고, 부인 완산 이씨는 그다음 해에 태어났는데,⁷ 숙종 38년(1712)에 결혼하여 두 사람은 35년을 같이 살았다.⁸ 그리고 영조 22년(1746) 7월 완산 이씨가 세상을 떠났고, 이때 남편 유숙기는 아내의 제문을 썼으며, 또 2년 후 탈상 때에도 제문을 썼다. 아래에서 두 제문의 원문과 함께 번역을 신는다.⁹

7 완산 이씨는 세상을 떠나던 해에 남편 유숙기에게, “제 나이가 50이 되었는데, 일찍이 이렇게까지는 기약하지 않았습니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지탱할 수 있어서, 자녀의 혼인을 모두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죽어도 유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으므로, 1697년에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숙기의 행장에도 부인이 “선생보다 1년 늦게 태어났다(後先生一年而生)”라고 했다. 유숙기의 행장은 김양행(金亮行, 1715~1779)의 『지암집(止庵集)』 제9권에 실려 있다(규장각 소장본).

8 유숙기의 처 완산 이씨는 영조 26년(1746) 7월 27일 세상을 떠났는데, 제문에서 두 사람이 35년을 같이 살았다고 했으므로, 1712년에 결혼했음을 알 수 있다.

9 『겸산집』의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의 자료를 이용했는데, 이 자료를 원

5 정병설, 「한글소설이 세상을 현혹한다. 조선시대의 소설 향유」, 『놀이로 본 조선』, 글항아리, 2015; 한길연, 「대하소설의 자료사적 궤적과 공공화 방안」,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관계윤리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19.

6 제문을 모아 번역한 『옥 같은 너를 어이 묻으랴』(이승수 편역, 태학사, 2001)나 『빈 방에 달빛 들면』(유미림 외, 학고재, 2005) 같은 책에도 유숙기가 쓴 제문은 실리지 않았다.

2.1. 제망실이씨문(祭亡室李氏文)

祭亡室李氏文

維歲丙寅七月乙未朔二十七日辛酉, 亡室淑人完山李氏 以疾阜復于驚城縣衙之內寢. 越三月季秋之十九日壬子 將鞠向于忠州石室新卜庚坐之原, 仍以其廿八日庚寅 永就窆窆之藏. 夫杞溪俞肅基 哀知己之永訣 痛身世之全非. 用其啓殯前二日十七日丁亥 薦清酌庶羞之奠於靈座之前, 抽腸爲文 以告悃悃之辭曰,

古人有言 ‘士爲知己者死’ 此言何謂也. 人於處心行事之間, 率多表裡隱顯之不同 情狀萬別, 鬼神莫測 他人不知. 惟迹是循 而有能灼然 究觀於方寸隱微之地. 舍其外而得其內 原其情而恕其迹, 兩心相照 洞徹無間, 如鮑叔之知管仲, 元伯之知巨卿, 則斯之謂知己焉矣. 夫爲若人地者 死且不辭, 則當其一死一生之際 其悲哀痛惜之心 必有萬倍於恒情者. 此鍾子期死 伯牙終身不鼓琴者也. 凡人相知 貴相知心, 則況以夫婦之愛 而有知己之情, 其所悼亡而惜死者 尤當何如耶.

嗚呼, 淑人非吾知己乎? 吾與淑人爲夫婦三十五年, 淑人之處心行事 無一不可於吾意者. 吾之本末長短 亦無一不爲淑人之所知者. 一自合卺之初 以至老大髮白, 周旋於一室之內 參對於朝夕之間, 而蓋無一言之或拂 一事之或戾. 鍼芥投而膠漆合 宮商叶而律呂調, 哇吟不設於爾我 肝膽靡隔於彼此. 人孰無夫婦, 其相得之深 如吾兩人者 蓋無其幾. 則謂之知己者 不亦可乎.

嗟呼, 豈惟如是而已. 余性鹵下而受氣不甚偏駁, 故雖朋友之間 欲指其心術氣質之疵病 則或難於爲說. 而淑人之評吾則曰, “樂易多恕而舊惡必念 謙退不伐而矜字難祛, 雖有受善之量而吝於改過 非無觀人之明而失於逆詐, 此君子之實病也. 如欲進德 須先絕四.” 衽席之上 月朝森嚴, 嬉笑之際 箴諷懇到.

噫, 是數者誠吾平生難醫之痼疾也. 由其着在心肚之隱密, 他人不知 惟我獨知. 故謂可以自欺而欺人. 使吾表裡二致 隱

顯殊觀, 駸駸然將入於小人之域者 皆是物也. 而乃被淑人之所觀破, 余於淑人 蓋不得遁其情焉. 然賴淑人藥石之規 而鋤治矯揉之有年, 邇來點檢 微覺有一二之減却. 窃幸其閨房之內 得有師友切磨之益, 若是者詎不謂之真知己乎.

余天下之窮人也. 早失怙恃 中喪兄弟, 內無血胤 外乏親朋. 持而自慰者 惟有一知己淑人在耳. 今淑人死 而吾之知己盡矣. 俯仰茫茫 將安所置余乎?

嗚呼, 淑人有溫順簡栗之德 專一貞固之操. 天姿之靚粹 則蘭秀而雪瑩也, 心事之澹泊 則玉潔而水清也. 自在其室 甚得父母之愛, 逮歸於吾 深爲家大人之所宜. 嘗教不肖曰, “汝妻賢淑 是汝福也, 諧和妯娌 絕無底蓋之方圓.” 與余半生同室 而一味羞澁, 終其身不改三日新婦樣. 持身莊重 雖當倉卒之會 而未見急遽之容. 出言簡當 雖值喜怒之發 而未有過溢之辭. 樂施於人而不欲示德色, 行有不得而無一毫怨尤. 臨財而懼 得少爲足. 若論寡欲分數 則殆鮮其匹, 謙謙自牧 常存百不能之心. 聞人稱己 羞愧欲死, 平生行己 一主於誠信拙直. 見人有虛僞伎克之事 若不忍正視. 治家有度 不煩而事理. 日必早起 俯首握務 孜孜不怠. 恩施不偏 使婢僕人人愛戴 各得其歡心. 噫, 此非淑人之懿德 可以爲範於閨門者乎. 雖然是特其大略耳.

余嘗戲謂淑人曰, “子之賢如此 余每欲誇於人. 而諺云 ‘譽妻者真愚’ 吾欲免其真愚也 故越趨不發. 然萬有一 我或後死, 則當鋪張於誄文中 使今與後咸知子之賢耳.” 淑人雖知其爲戲言 而猶且惡覺不安曰, “如我者豈有可紀之賢乎? 倘子誄我而一有過情之語 則雖魂魄 亦當遠遁而不饗耳.” 夫以淑人平日之意如此, 而今於幽明訣別之文 苟加毫髮溢美之辭 則是豈知己相與之意乎? 所以臨紙鄭重 不敢信筆而徧書也, 淑人其知之乎.

淑人既有高世之德美 何福祿之不臻. 而過去光陰 不免多憂而少樂, 最是連育三女而不舉一男 爲平生大恨. 晚得螟兒 貴重如拱璧. 末女當笄 尤所偏愛, 年歲以來 雖沈疴彌留, 積淹床茲. 而乃其至願之憧憧 惟冀兩兒之成立. 每語於余曰, “我年滾到五十 曾所不期. 若更支延數年 及見子女婚嫁之畢 則死且無憾.” 不幸朝露奄及 竟不得遂其願而死, 一何天道之茫昧也.

문과 대조했고, 문장부호는 필자가 다시 붙였으며, 단락도 나누었다. 「祭亡室李氏文」은 2,159자이고, 「祭亡室墓文」은 977자이다.

抑余有沒身不可忘之悲焉. 淑人之死疾 盖兆於庚申冬失血之後, 眞元一敗 痰火乘之. 每年輒夏歇而冬劇 今夏則神氣比前較勝. 六月促余成富兒之冠禮, 喜動於色 謂余曰, “吾夫婦五十 始見丈夫子在前, 豈不貴乎,” 又曰, “俟涼生 當率兩兒北上, 得見久離之兩女與一家親戚. 冬過子婚, 春行女婚而還, 如是思量 預覺心神快活.” 余亦聞而喜甚 以其宿病之將因喜有瘳也. 無何而忽得吐瀉之症 浹旬辛苦, 然猶夙興斂衾 自力治績. 余在外軒 終日聽事之暇, 有時入內問疾. 見其起坐酬酢如常 殊不之深慮也. 及其用藥無效 彌日沉淹然後, 始加焦憂 亟邀醫論症. 則一日之內 元氣暴虛, 病至於不可爲矣. 淑人於病裡 累謂余曰, “吾之此病 與前有異, 甚可怪.” 又曰, “昔在金溝時 有術人推子之命曰, ‘丙寅必有叩盆之憾’ 今能記得否.” 又曰, “曩聞子夢兆甚凶, 今吾病重 將使此夢有驗乎.” 如是言者甚多 而余皆不省焉. 自今而思之 淑人則已自知其不可起, 凡所云云 皆有爲而發也.

苟於其始病之初 早能驚動 汲汲醫治, 尙庶有回輒之望. 緣余性泛而心不靈 不克及時問醫, 對症下藥 輾轉添就 遂至於此. 雖云天命 亦人事有以致之也, 此爲余追恨之徹骨者也.

嗚呼, 淑人臨歿時光景 可忍想哉. 續息將絕 而精神不爽, 憫余之衰 勉以慎生. 語及兩女 恨其無從面訣 而丁寧託付. 乃在於末女之善護 乳媪之後事, 言無失倫 意有餘悲.

嗚呼, 余尙忍忘此意也耶? 余之祿仕 出於下策, 淑人之所知也. 汨沒風塵 以官爲家, 徒爲三家百口計耳. 而自哭淑人 身世已全非. 宦情益灰冷 行當拋腰下之青緇. 買雲間之玉峯 往與枯禪, 默默對坐於蒲團寂寞之上, 以畢餘生而已 寧不悲哉.

石室之原 卽吾家族位, 而地盡無容棺處. 新占一穴 於大山白虎外負庚之岡, 面勢平穩 結局回抱, 凡眼亦知其佳. 今以淑人葬于此 而虛其右 爲吾日後地. 吾爲淑人 生前所經營者 僅有此耳. 然余今神思忽忽 鬢髮種種, 自念住世無幾. 泉臺會合 復續平生知己之樂 直是早晚間事. 餘外瑣瑣 今不必瀾縷也.

尙記淑人見吾作祭人文 謂曰, “子好作文祭人 而其文必張皇. 我死後祭我之文 將幾許多耶, 吾魂魄必聽之.” 今吾乃作是文 以祭淑人 而不覺紙墨之猥多, 疇昔之言 眞成讖耳. 淑人之

靈 其果默聽於冥冥中否. 嗚呼痛哉.

돌아간 아내 이씨 제문

병인년(1746) 7월 27일, 나의 아내 완산 이씨가 임피현 관아의 내실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 달이 지난 9월 19일, 충주의 석실에 새로 정한 자리로 발인하여, 28일 영원히 장지에 묻었습니다.

남편 기계 유숙기는 지기(知己)와의 영결을 슬퍼하고, 모든 것이 어그러진 신세를 한탄하며, 관을 내가기 이를 전인 17일에 술과 다른 음식을 간단히 영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슬픔을 다 글로 옮겨 진실한 말로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가짐과 일 처리에서, 겉과 속이 다르거나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이 다른 일이 많습니니다. 그 상황이 수없이 다른 것은 귀신도 헤아리기 어렵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정도를 따르고 분명히 해야 마음에 감추어진 미세한 바를 궁구하여 살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을 버리고 내면을 찾으려, 정에 근원하여 그 행적을 헤아리고, 두 사람의 마음을 서로 비춰보면 아무 틈도 없이 환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포숙(鮑叔)이 관중(管仲)을 이해하고 장소(張劬)가 범식(范式)을 알아준 것과 같으니, 이를 지기(知己)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죽음도 사양하지 않는 것이니, 그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때를 당하여 그 비애와 통석의 마음은 일반적인 정보다 만 배는 더할 것입니다. 이것이 종자기(鍾子期)가 죽자 백아(伯牙)가 평생 금(琴)을 연주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사귄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부부의 사랑에 지기의 정이 있다면,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마음은 얼마나 더 절실하겠습니까?

아아! 숙인(淑人)은 나의 지기(知己)가 아닙니까? 나와 숙인이 부부가 되어 35년을 사는 동안, 숙인의 마음가짐과 일

처리는 내 뜻과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나의 본말(本末)과 장단(長短) 또한 숙인이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한 방에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마주 대했는데, 한마디도 다투지 않았으며 한 가지 일도 어그러짐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서로 끌어당기고 아교풀이 서로 붙듯이 의기가 투합했고, 음악의 곡조가 어울리듯 서로 조화를 이루었으며, 서로 사이에 아무런 경계가 없고, 또 서로의 마음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왜 없으리오마는, 우리 두 사람처럼 틈새가 없는 부부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기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아아! 그러나 어찌 그것만이겠습니까? 나는 자질이 못났지만, 타고난 기질이 심하게 편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친구 사이에서 내 성격과 기질의 병통을 지적하려고 해도 찾아내어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숙인은 나를 평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성품이 화락하고 이해심은 많으나 지난날의 잘못을 반드시 기억하고, 겸손하게 물러나 뽐내지는 않으나 자랑하는 버릇을 없애지 못합니다. 비록 선한 것을 받아들이는 아량은 있지만 지난날의 허물을 고치는 데는 인색하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속임수에 빠집니다. 이것이 당신의 실제 병입니다. 덕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먼저 이 네 가지를 끊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부 자리 위에서조차 나에게 대한 평가는 엄정하였고, 웃으며 놀 때도 경계가 간곡했습니다.

아아! 이 몇 가지는 진실로 내가 평생 고치지 못하는 고질입니다. 내 마음에 은밀하게 붙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오직 나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속임으로써 나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안과 밖이 일치하지 않고, 드러난 것과 감춰진 것이 다른 이 문제는, 나를 점차 소인의 경지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숙인이 이미 간파하고 있었으니, 나와 숙인 사이에는 그 사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숙인의 유익한 모범에 힘입고, 오랜 기간 뿌리를 뽑아 교정을 했으므로, 그동안 점검해보니 한두 가

지는 없어졌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절차탁마하여 보탬이 되는 스승이 될 만한 벗이 규방에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진정한 지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천하에 곤궁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중간에 형제들도 잃어서, 안으로는 혈육이 없고, 밖으로는 친지와 친구가 적었습니다. 이런 내가 스스로 위로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의 지기(知己)인 숙인이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숙인이 세상을 떠나 나의 지기가 없어졌으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아득하기만 합니다. 장차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아아! 숙인이 가지고 있던 온순하고 수수한 덕은 오로지 굳은 정조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준 깨끗함은 난초처럼 우아하고 눈처럼 빛났으며, 마음의 씩씩이는 담백하여 옥처럼 깨끗하고 얼음처럼 맑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나와 결혼한 후에는 내 아버님이 몹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일찍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처의 현숙함은 너의 복이다. 동서와도 잘 어울리고, 집안에 서로 대립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반생을 함께 살면서 하나도 결끄러운 일이 없었으며, 죽을 때까지 혼인한 지 사흘 후에 시부모를 뵙는 신부의 모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몸가짐이 장중해서, 비록 갑자기 일이 생기더라도 서두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말은 간단하고 명료하며, 즐거움이나 노여움을 나타낼 때도 지나친 언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면서도 덕이 있는 체하지 않았으며,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털끝만큼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앞에 두면 조심했으며, 조금만 가져도 만족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분수를 지키는 것으로 말한다면, 숙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겸손하고 스스로 자신을 다스려, 항상 모든 것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거의 죽을 지경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으니, 숙인의 평생 행실은 성실과 솔직함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거짓과 남을 해치

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차마 바로 보지 못했으며,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법도가 있어서 일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일찍 일어나서 머리 숙여 일을 하는데,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으며 힘을 썼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는 공평하게 하여, 각각의 노비들에게 애정을 주어 그들 모두 기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아! 이것은 숙인의 아름다운 덕행이니, 규방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저 대략 말한 것뿐입니다.

나는 일찍이 숙인에게 농담하듯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현명함이 이와 같으니, 나는 매번 남에게 당신 자랑을 하고 싶지만, ‘아내를 칭찬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속담이 있으므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망설이다가 말하지 않았소. 그러나 만일 내가 당신보다 후에 죽는다면, 마땅히 이 내용을 뇌문(誄文)에 넣어서, 지금 사람과 이후의 사람들이 모두 당신의 현명함을 알 수 있게 하겠소.” 비록 이 말이 농담이라는 것을 숙인은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부끄럽고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쓸 정도로 현명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나의 뇌문에 그런 지나친 말을 써넣는다면, 비록 나의 혼백이라도 멀리 도망가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숙인의 평상시 뜻이 이와 같았으니, 이제 이승과 저승으로 갈라지는 이별의 글에 조금이라도 지나친 찬사를 쓴다면, 이것이 어찌 지기(知己) 사이에 서로 뜻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글을 쓸 때는 정중하게 써야지, 붓을 함부로 놀려서 편벽되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숙인은 알고 계시지요.

숙인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덕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찌하여 복록은 누리지 못하였을까요. 지난 세월에 많은 우환은 면할 수 없었고 즐거움은 적었는데, 가장 큰 것은 딸 셋을 연달아 낳고 아들을 얻지 못한 것으로 이것이 평생 가장 큰 한이었습니다. 늦게 양자를 얻어 큰 보배처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막내딸이 계례(笄禮)를 행할 무렵에 딸을 더욱 사랑했는데, 이 해 이래로 고질병이 낫지 않고 쇠약해져 자리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때 숙인이 줄곧 지극히 바란 것은,

오직 두 아이의 결혼이었습니다. 매번 내게 말하기를, “제 나이가 50이 되었는데, 일찍이 이렇게까지는 기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몇 년 더 지탱할 수 있어서 애들의 혼인을 모두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불행히 아침이슬처럼 스러져버리니, 마침내 그 소원은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늘의 도는 어찌 그리 아득한가요.

내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비통함이 있습니다. 숙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병은 대체로 그 조짐이 경신년(1740) 겨울에 다량의 출혈 후에 나타나서, 원기를 한 번 잃은 후에 담으로 인한 열이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여름에는 덜하고 겨울이면 심해졌는데, 이번 여름에는 원기가 전에 비해 나왔습니다. 6월에는 아들의 관례를 해주라고 재촉하고, 즐거운 기색을 띠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 부부가 50이 되어서 처음으로 장성한 아들을 앞에 두었으니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또, “날씨가 서늘해지기를 기다려서, 두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오래 떨어져 있던 두 딸과 일가친척을 만나보겠습니다. 겨울에 아들을 장가들인 다음, 봄에는 딸을 시집보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미리 심신이 쾌활함을 느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 또한 매우 기뻐고, 고질병이 이 즐거움으로 장차 낫기를 기대했습니다.

얼마 후 갑자기 토하고 설사를 해서 열흘 동안 몹시 고생했지만,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스스로 몸을 추슬렀습니다. 나는 바깥의 동헌에서 하루 종일 업무를 보다가, 틈이 나면 때때로 안채로 들어와 병세를 물어 보았습니다. 당신이 일어나 앉아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보고, 특별히 깊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약을 쓰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게 되고, 날로 병세가 심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더욱 애태우며 급히 의원을 불러 증세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원기가 갑자기 허해져서 병세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숙인은 병상에서 여러 차례 나에게 얘기하기를, “나의 이병이 전하고는 다르니 매우 이상합니다”라고 하고, 또, “전에

금구(金溝)에 있을 때, 어떤 점쟁이가 당신의 운명을 점치고는, ‘병년년에 반드시 아내가 죽는 슬픔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억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으며, 또, “지난번에 당신의 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나의 병이 이렇게 심해졌으니, 그 꿈이 맞는가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나는 이 모든 말을 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숙인은 자신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 다. 이런 모든 얘기는, 숙인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병이 생겨난 초기에 일찌감치 서둘러서 의사의 치료를 잘 받았더라면, 병이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평범하고 정치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의사에게 묻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증세에 맞는 약도 못 써서, 병이 점점 심해져서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늘의 명이라고 하지만, 역시 사람의 일에는 거기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뻗속 깊은 나의 누우침과 한탄이 되었습니다.

아아! 숙인이 숨을 거둘 때의 모습을 어찌 차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숨이 끊어져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나의 몸이 약한 것을 걱정하며 섭생에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한스럽다고 하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을 잘 보살펴줄 것과 유모의 뒷일을 말할 때는, 그 말 모두 조리가 맞았는데, 그 뜻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아! 내가 어찌 차마 이 뜻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벼슬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임을 숙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풍진에 골몰하며 관직을 해서 집안을 먹여 살리니, 부질없이 세 집의 백 명 식구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숙인을 곡(哭)하면서, 신세는 이미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벼슬에 관한 생각은 더욱 냉담해져서, 이제 벼슬은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름 사이의 옥 봉우리를 사서, 적막한 그곳에 가서 선승과 함께 묵묵히 방석 위에 마주 앉아 나의 여생을 마치려고 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충주 석실의 언덕은 우리 집안의 가족 묘지인데, 자리를 다 써서 묻을 곳이 없습니다. 새로 자리를 잡은 곳은, 대산의 오른쪽 밖의 동북쪽 언덕으로, 땅의 세(勢)가 평온하고 아늑한 형국이니, 평범한 눈으로 보아도 그 자리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숙인을 이 자리에 장사 지내는데, 그 오른쪽은 비워두어 내가 죽은 후에 장사 지낼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숙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겨우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정신이 없고, 머리카락은 성글어졌으니, 스스로 생각해 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하에서 만나 평생의 지기로서 누린 즐거움을 다시 이어가는 것은, 바로 조만간에 닥칠 일입니다. 이밖에 자질구레한 말은 지금 자세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제문을 쓰는 것을 보고, 숙인은 말하기를, “당신은 남의 제문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 문장이 너무 장황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제문을 써도 그렇게 길게 쓰겠지요. 내 혼백은 반드시 잘 들을 것입니다”라고 한 말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글을 써서 숙인을 제사 지내고 있는데, 글자가 많아진 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전에 한 말이 진실로 앞일을 예언한 것이군요. 숙인의 영혼은 말없이 아득한 하늘나라에서 듣고 있겠지요.

아아! 슬픔니다.

2.2. 제망실묘문(祭亡室墓文)

祭亡室墓文

維歲戊辰八月癸未朔十九日辛丑, 夫俞肅基以酒果之奠 昭告于亡室淑人完山李氏之墓曰. 嗚呼, 自吾與淑人別 星霜忽焉累變, 禮制有終 而筵几已輟矣. 秋氣淒涼 而墓草再宿矣, 平時惜離 若不堪於須臾, 而逝後光陰 不覺迅邁如許.

嗚呼, 何其久堪也. 埋玉荒山 漠然若棄置三年而始一來. 雖以淑人之知吾, 不諒事故之牽掣 而或謂其寡情否.

若余中間飽經憂患疾病 而所以相怨於淑人者則有之. 吳內

宿病 添就於巨創後, 沉淹半年 怪症百出. 只余一人 日夜躬自扶持, 每於中宵不寐之際 不免埋怨淑人曰, “何不留與同憂, 而獨使我焦心乎.”

今年春初, 余又遭疾極危 去死隔紙. 每當疾痛無聊之極, 輒思淑人而怨之曰, “使其在傍而盡調護之道 則或庶有瘳, 何乃棄我邁邁 而使我罹此痛苦 無與告語乎.” 噫, 假令淑人而在者, 亦何能使憂患遽去 疾病頓已. 而吾之心以爲非淑人則莫可, 誠以白首相依 惟吾兩人, 而一朝失之 若割半體, 故不覺臨急而思之. 思之而不見, 至於怨則可見其思之切矣. 吾於淑人, 夫何日之不相思 何事之不相念, 而惟此爲大難堪 故特提出而云云耳. 然此猶是過去事 今余所遭爲何等耶.

余失淑人, 所與爲生者 惟淳姪一人, 而不幸中途短折 奄作逆旅之孤魂. 淑人不啻以渠比之於劉氏三代錄中所謂伯敬者乎? 又不啻謂此姪年少而能慎攝異常 必享壽無疑乎. 家運將亡 而使賢如渠而宜壽者 遽至於此. 渠亡而余之身世益窮獨 無可言矣. 年歲以來 喪威荐酷 涕淚無晷時, 氣貌髭髮 比舊頓改 若是而能久於世乎? 淑人而有知, 亦必悲余之到老益窮, 憂余之過哀致傷 而憫惻於冥冥中也.

淑人臨絕時所託付於吾者. 凡有數事, 首先戒余以慎生, 而其次以富兒婚姻之不成爲憂, 末又以乳媪後事之加恤. 季女飢寒之另念爲言 琅琅在耳, 何時可忘耶. 乳媪自淑人喪後 每恨其不早下殉, 未幾遂死 能成其願, 余爲之躬視襲斂而送之矣. 今來見之 得葬於淑人墓北隔岡之地, 有如平日之常侍在後, 淑人之魂 應不孤子矣.

富兒之婚 定於明洞閨家. 卽頃年李生冠時, 淑人嘗見其處子 歸言於余而稱佳者也. 雖未及定期 而計於冬間可行, 未必不勝於初定處也.

季女能無病善長大. 淑人不在, 吾之足跡 益踈於內, 而以渠之故 有時出入, 見其肌膚豐盈 不似數年前孱弱. 與金氏結親 亦當在早晚間矣. 若是則吾於淑人遺託 庶幾次第不相負. 而惟是慎生二字 其言如金玉, 吾豈忽諸. 而天之机我 如恐不及. 雖欲勉進藥餌 保惜精神, 以圖久視之術 何可得也. 誠恐朝露奄及 竟孤臨歿相愛之意, 是爲自悼處也.

余之淹留丙舍 已兩旬有餘日, 瞻掃先隴 有時往撫淑人之新阡. 魂氣流通, 不遠伊邇 且悲且慰. 愴怳難爲心 而是亦不可以久矣.

倘淑人之念我, 何不入吾夢而相叙晤 如平素耶. 幽明永隔 語不可了, 惟有一掬哀淚 沾洒於寒山草露之原而已. 嗚呼哀哉.

돌아간 아내 이씨 묘에서 올리는 제문

무진년(1748) 8월 19일, 남편 유숙기는 술과 과자를 차려 돌아간 부인 완산 이씨 묘에 아뢰입니다.

아아! 내가 숙인과 사별한 지 벌써 몇 해가 지나서, 상례는 끝나고 궤연(几筵)은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의 기운은 바야흐로 쓸쓸한데, 묘 앞의 풀은 두 해가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별이 아쉬워서 잠깐이라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았는데, 돌아간 후의 세월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아! 오랫동안 어떻게 지내시었소. 황량한 산에 당신을 묻은 후, 마치 버려진 것처럼 쓸쓸히 묻혀 있는 곳에 3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비록 숙인이 나라의 사람을 안다 하더라도, 일에 끌려다니던 까닭을 양해하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나 않을지.

그동안 나는 온갖 근심과 질병을 겪어서, 숙인에게 있던 원망하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지병은 숙인이 돌아간 후에 더욱 심해져서, 반년 정도 위독해서 수없이 많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나 혼자서 밤낮으로 스스로 지탱했는데,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숙인에게 물어둔 원망을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해서 함께 걱정하게 머무르지 않고, 나 혼자 노심초사하게 하는가요?”

올봄 초에, 나는 다시 중병에 걸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를 정도로 극히 위험했습니다. 매번 통증이 심해져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면, 문득 숙인을 생각하며 이런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내 곁에서 간호를 잘 해주면 혹시 병이 낫지 않을까. 왜 나를 버리고 떠나서, 이런 고통에 걸린 내가 말 한마디 건넬 수 없게 하나.”

아아! 숙인이 살아 있다고 해도, 어떻게 나의 우환을 그치게 하고, 질병을 없애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는 숙인이 아니면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어서 서로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오직 우리 두 사람뿐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숙인을 잃으니, 몸의 반이 잘려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을 당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숙인을 생각한 것입니다. 당신을 생각해도 볼 수 없는 것이 지극한 원통함이란 것은, 당신을 생각하는 절실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숙인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있겠으며, 숙인과 관련된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므로, 특별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지나간 일이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숙인을 잃은 후로 더불어 사는 사람은 오직 조카 순(淳) 한 사람뿐이었는데, 불행이 중도에 죽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외롭게 되었습니다. 숙인은 일찍이 그를 <유씨삼대록> 중의 백경(伯敬)이라는 사람과 비교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또 이 조카가 나이는 어려도 능히 몸을 잘 삼가고 조심하니 특이하다고 하며, 틀림없이 오래 살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지요. 집안의 운수가 장차 망하려는지, 저처럼 어진 사람은 마땅히 오래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죽은 후에 나의 신체는 더욱 외롭게 되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초상을 치르는 일이 겹쳐서 일어나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기운과 모습 그리고 수염과 머리털이 옛날과 완전히 달라졌으니, 이르고서 어떻게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숙인은 지인지감(知人之鑑)이 있어서, 내가 늙으면 더욱 궁해지리란 것을 알고 슬퍼하고, 내가 지나치게 슬퍼하여 몸을 상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걱정하며, 아득한 저승에서 측은하게 생각하겠지요.

세상을 떠나면서 숙인은 내게 몇 가지 일을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섭생을 신중히 할 것을 경계한 것이고, 그다음은 부아(富兒)가 혼인하지 못한 것을 걱정했으며, 마지막으로 유모의 뒷일을 잘 보살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딸의 어려움에 대해 특별히 말한 것은 귀에 낭랑하게 남아 있으니, 어느 때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유모는 숙인이 돌아간 후에 일찍 따라 죽지 못한 것을 매번 원통하게 생각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죽었으니, 그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내가 유모를 위해 직접 염습을 해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 유모의 묘는 숙인의 묘 북쪽으로 언덕을 격(隔)해 있어, 살았을 때처럼 항상 뒤에서 모시고 있으니, 숙인의 혼이 응당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부아의 혼인은 명동(明洞)의 민씨네 집으로 정했습니다. 몇 년 전 이생(李生)의 관례 때, 숙인이 일찍이 그 처자를 보고는, 돌아와서 아름답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겨울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 정한 곳보다는 반드시 낫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막내딸은 탈 없이 잘 컸습니다. 숙인이 없으니, 내가 안체에 들르는 일이 더욱 드물어졌습니다. 막내딸 일로 안체에 출입할 때 보면, 수년 전의 마르고 약할 때와는 다르게 피부와 살결이 풍만하고 윤택합니다. 김씨와 혼인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숙인이 내게 한 부탁은 어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섭생하라는 말은 금옥처럼 귀중하게 간직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이 나를 위태롭게 하니 미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비록 약을 써서 정신을 보존하며 장생의 방술을 쓰려고 하나, 어찌 그렇게 되겠습니까. 진실로 두려운 것은, 아침이슬처럼 스러져 당신의 사랑하는 뜻을 마침내 내가 저버릴지도 모르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나의 걱정하는 일입니다.

산소 옆의 재실(齋室)에 머문 지 이미 이십여 일이 지났는데, 선영을 찾아보고, 때때로 숙인의 무덤에 와서 쓰다듬어봅니다. 영혼은 흘러 다닌다고 하니,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정신이 없으니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것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숙인이 나를 생각한다면, 왜 내 꿈에 들어와 평소처럼

림 서로 말해주지 않으시나요. 이승과 저승이 영원히 가로막혀 말할 수 없으니, 오직 한 움큼 슬픔의 눈물을 쓸쓸한 산의 풀잎에 맺힌 이슬의 언덕에 뿌릴 수밖에 없군요.

아아! 슬픔니다.

3. 유숙기 제문의 특징

앞에서 유숙기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을 추모하는 두 편의 제문을 보았는데, 조선시대에는 아내를 추모하는 제문이나 행장(行狀) 또는 묘지(墓誌)을 쓴 사람은 많고, 또 전하는 글도 상당량이 된다. 그리고 이런 글을 연구하여 논문이나 단행본으로 낸 연구자도 여러 사람이다. 이런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유숙기의 제문이 갖고 있는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특히 한글소설과 관련해서 유숙기의 제문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까도 아울러 논의할 것이다.

3.1. ‘지기(知己)’라는 표현

세상을 떠난 부인의 제문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인(夫人)’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 밖에 남편이 벼슬을 했으면 아내의 봉작(封爵)을 쓰는 것도 일반적이다. 또 ‘그대’나 ‘당신’이라는 의미로 ‘군(君)’이나 ‘자(子)’도 많이 쓰고, 간혹 ‘내자(內子)’라는 표현도 보인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아내의 제문에서 아내를 ‘외우(畏友)’, ‘양봉(良朋)’, ‘사대부보다 나은 사람’, ‘아녀자가 아니라 대장부에 가까운 사람’, ‘현우(賢友)’, ‘양우(良友)’, ‘여사(女士)’, ‘장부’, ‘사군자(士君子)’, ‘사우(師友)’ 등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¹⁰ 그런데 이런 표현은 단순히 아내를 지칭하는 용어로 쓴 것은 아니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평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숙기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지기(知己)’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내를 지기라고 말하는 예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것 같다.¹¹ 두 편의 제문 중 ‘지기’라는 표현은 장례 때 쓴 제문에만 나타나고, 탈상 때 쓴 제문에는 이 표현이 없다. 장례 때 쓴 제문에서 ‘지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대목을 순서대로 보기로 한다.

제문의 첫머리에, “남편 기계 유숙기는 지기와의 영결을 슬퍼하고, 모든 것이 어그러진 신체를 한탄하며(夫紀溪俞蕭墓 哀知己之永訣 痛身世之全非)”라고 하여,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숙인 완산 이씨’를 ‘지기’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옛사람이 말하기를,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고 했습니다(古人有言 士爲知己者死)”라는 말이 나온다. 『사기(史記)』 「자객열전(刺客列傳)」에 나오는 이 유명한 내용은 남자들 사이에서 쓰이는 표현이므로, 유숙기는 아내를 여성에게 쓰는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신과 아내를 관중(管仲)과 포숙아(鮑叔牙) 사이에 빗대거나, 장소(張劬)와 범식(范式) 사이와 비교한 것에서도 볼 수 있으며, 또 종자기(鍾子期)와 백아(伯牙) 사이를 얘기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관중과 포숙, 장소와 범식, 종자기와 백아 사이는 남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보다는 남자들 사이에서 서로를 알아주는 관계를 얘기할 때 많이 쓰인다. 이는 유숙기가 자신과 아내와의 사이를 애정보다 의리에 더 무게를 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숙기가 반드시 의리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유숙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귀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부부의 사랑에 지기의 정이 있다면,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마음은 얼마나

10 박무영,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회연구』 32, 한국한문학회, 2003. 341쪽; 유미림, 「조선 시대 사대부의 여성관: 제망실문(祭望室文)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5), 2005, 43쪽.

11 김수진은 이인상(李麟祥, 1710~1760)의 아내 제문을 얘기하면서, 이인상이 아내 덕수 장씨를 지기(知己)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문에서는 ‘知己’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수진, 「죽어야 사는 여자: 이인상과 김중수의 여성 제문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82, 한국한문학회, 2021.

더 절실하겠습니까(凡人相知 貴相知心, 則況以夫婦之愛 而有知己之情, 其所悼亡而惜死者 尤當何如耶)”라고 하여, 두 사람 사이의 사랑에는 지기의 정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3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 간에 모르는 것이 없고, 또 서로 뜻을 거스른 적이 없으며, 둘 사이에 전혀 틈새가 없었으므로 지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의리와 애정에 더해 유숙기는 아내를 스승에 빗대기도 했다. 완산 이씨는 유숙기의 성격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교정했다고 한다. 유숙기는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아내 덕분에 자신의 결점 한두 가지는 없앨 수 있었음을 말하고, “다행히 절차탁마하여 보탬이 되는 스승이 될 만한 벗이 규방에 있었으니(尙幸其閨房之內得有師友切磨之益)” 아내가 진정한 지기라고 말했다.

유숙기는 아내를 ‘규방에 있는 스승이 될 만한 벗’이라고 하여, 완산 이씨가 의리와 애정 그리고 스승의 역할까지 해주었음을 말했다. 그리고 안으로 혈육이 없고 밖으로 친구가 적은 자신이 스스로 위로한 것은, “오직 한 사람의 지기인 숙인이 있다는 것뿐이었는데(惟一知己淑人在耳)”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자신의 지기가 없어졌음을 슬퍼한다. 그러면서 유숙기는, 이 제문에 쓴 여러 가지 아내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모두 사실이고, 아내를 지나치게 칭찬하는 말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는 지기에 과장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내의 초상을 치르던 때에 쓴 제문에서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아내를 지기(知己)라고 표현했지만, 2년이 지난 탈상 때 쓴 제문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는, 아내와 함께한 여러 가지 일을 떠올리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격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만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쓴 제문에서는, 자신이 육체적이고 통에 너무 시달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아내가 없는 아쉬움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있다.

유숙기가 임피(臨陂) 현령으로 재직하던 영조 22년(1746) 7월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다음 해 8월 유

숙기는 전주 판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영조 26년(1750) 1월 전주 판관을 그만두었고, 그해 8월에 세자 익위사 사어(世子翊衛司司禦)로 발령이 났다가 취소되었다. <승정원일기> 영조 27년(1751) 4월 기사에는 유숙기를 세손위종사 좌장사(世孫衛從司左長史)에 임명하였다고 했는데, 11월 15일 기사에는 “좌장사 유숙기는 평소에 이상한 병이 있는데, 열흘 동안 위독했다고 합니다”라고 하고, 벼슬을 그만두게 해 달라는 청원서를 내어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다음 해인 영조 28년 4월 6일 기사에는 유숙기가 죽었다는 내용이 나온다.¹²

유숙기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몇 가지 있다. 주로 학자적 성향이나 성실한 품성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쓴 글이다. 그런데 그런 자료보다 아내의 제문에서 스스로가 어떤 인물인지 말한 내용이라든가, 아내가 그를 평가한 말이 더 정확하게 유숙기가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는 것 같다. 그는 죽기 3년 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몸은 뼈만 남고 얼굴은 아위었으니,
자연 속에 있는 것이 마땅하겠다.
잘못해서 벼슬하는 길로 들어서,
더부룩한 수염이 모두 하얗졌네.
벼슬하는 것은 분수가 아니고,
허리를 굽히는 것은 치욕이니,
관리가 입는 옷은 그만 입고,
벼슬하기 전에 입던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네.¹³

유숙기는 부인의 제문에서도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벼슬을 한다고 말했는데, 이 글에서

¹² 유숙기는 영조의 손자 의소세손(懿昭世孫, 1750~1752)의 시위(侍衛)를 맡는 세손위종사에서 종6품 벼슬인 장사(長史)에 임명되었다가, 1752년 2월 28일에 죽었다. 그런데 세손이 며칠 후 3월 4일에 병으로 죽었다. 영조가 쓴 세손의 제문에, 먼저 죽은 장사(長史)가 저승에서 세손을 맞이하려고 하였다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장사는 유숙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¹³ 『검산집』 제8권, 瘦骨癯容 合置山澤 誤落塵網 鬚髮盡白 食肉非分 折腰斯辱 深衣大帶 返爾初服(「寫真自識」)

는 벼슬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기(知己)인 아내 완산 이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유숙기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함께 질병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아내가 죽은 지 5년 반 후에 아내의 뒤를 따랐다.

3.2. 소설을 언급함

유숙기는 「제망실묘문(祭亡室墓文)」에서 아내가 〈유씨 삼대록〉을 읽은 내용을 말했는데, 아내가 소설을 읽었다는 사실을 제문에 넣어서, 이 글을 읽는 사람 모두가 알게 한 것은 특이한 일이다. 아내를 비롯한 여성의 제문에 그 여성이 읽은 책에 관해서 쓰는 일은 꽤 많이 볼 수 있으나, 이런 글에서 소설을 거론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 여성의 제문에서 책을 언급한 자료 몇 가지를 보기로 한다.

임성주(任聖周, 1711~1788)는 세상을 떠난 아내 신창 맹씨(新昌孟氏)의 제문에서, “내가 전에 재곡(宰谷)의 관아에 있을 때, 우연히 당신이 열 살 때 베긴 〈소학언해〉를 보았는데, 책 뒤에 시를 지어 힘써 경계한다고 했다. 내가 웃으면서 ‘이것은 자손에게 보여줄 만하다’라고 말했다”(昔余之處館於宰谷也, 偶見子十歲時所寫小學諺解 題詩其後以勉戒之, 因笑而語曰 此可以示子孫也)라는 내용이 있다.¹⁴ 이 제문에서 임성주는 아내가 어렸을 때 베껴 쓴 〈소학언해〉를 본 기억을 되살리는데, 이를 통해 아내가 훌륭한 인물이었음을 드러내었다.

김시보(金時保, 1658~1734)도 아내 파평 윤씨(1656~1702)의 행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

그대는 맑고 따뜻하며 뛰어난 식견을 가졌는데, 어려서부터 〈소학〉 〈열녀전〉 〈여계〉 등의 책 읽기를 좋아하였소. 평소에 즐겁고 화목하며 온화하여, 멀고 가까운 친척들이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소(君淑惠溫明 有高人見識 自幼愛看小學

列女傳 女戒等書. 平居樂易 和氣藹然, 遠近宗族 無不親嚮).¹⁵

아내가 읽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책을 베낀 사실을 행장에 기록한 예도 있다. 김상헌(金尙憲)의 손자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은 아내의 행장에,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왕세자의 아내였을 때, 할아버지 김상헌에게 〈열녀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올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초본을 쓰도록 하고, 이를 아내에게 주었는데, 아내는 이 책에 깊이 빠져 읽고 흠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내용을 적어두었다.¹⁶ 인선왕후는 김상헌의 형 김상용(金尙容)의 외손녀이다.

앞에서 언급한 민우수(閔遇洙)는 친구 김신겸(金信謙, 1693~1738)의 부인 묘지명(墓誌銘)을 쓴 것이 있는데, 이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유인은 식견이 슬기롭고 마음이 공평하며, 남을 해치거나 탐욕스러운 마음이 없었다. 기운과 도량이 맑고 조용하여, 평소에 급한 말이나 갑작스러운 기색이 없었다. 사람을 대할 때, 귀하고 천함이나 나이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온화하게 했고, 인정에 맞지 않는 일을 만드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어려서 〈소학〉 〈열녀전〉 〈여계〉 등의 책을 읽었고, 또 가르치지 않았어도 시사(詩史)에 대략 통하였다(孺人識慧心公 枝求自絕, 氣度清明靜一. 平居無疾言遽色 待人無貴賤長幼 一以恬和, 甚惡作情外事. 幼時誦小學列女傳女戒等書, 又略通詩史 而不煩教誨).¹⁷

김신겸은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의 아들인데, 김창업은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했다고 한다. 김신겸은 아내 완산 이씨(1692~1724)가 죽자, 민우수에게 평소의 아내 행적을 말해주고, 또 자신이 지은 아내의 행장을 주며 묘지

15 『모주집(茅洲集)』 제10권, 「망실숙인운씨행장(亡室淑人尹氏行狀)」.

16 “仁宣王后在嬪宮 命文正公諺釋列女傳以進 文正公使淑人書其草本 仍以與之. 淑人潛心循覽 有所興慕.” 『곡운집(谷雲集)』 제6권, 「망실숙인조씨행장(亡室淑人曹氏行狀)」.

17 민우수, 『정암집(貞菴集)』 제10권, 「유인완산이씨묘지명병서(孺人完山李氏墓誌銘并序)」.

14 임성주는 첫 번째 부인 신창 맹씨와 1726년에 결혼했고, 부인은 1730년 스무 살에 세상을 떠났다. (「상전우제망실신창맹씨문(祥前又祭亡室新昌孟氏文)」 참조)

명을 써달라고 부탁했다.¹⁸ 김신겸이나 민우수는, 젊은 나이에 죽은 여성이 <소학> 등의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 여성을 기릴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민우수는 조카의 아내 묘지명을 쓰면서도 조카의 아내가 <소학>이나 <내칙(內則)>을 읽었음을 얘기했고,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은 송시철(宋時喆, 1610~1673)의 아내 묘지명을 쓰면서, “일찍이 글을 배운 적이 없으나, 총명하고 영민하고 사리에 밝으며, 마음가짐과 절제된 행실이 자연히 <내훈>이나 <열녀전> 등 여러 책에 실린 도리에 맞았다(未嘗學習文字 而聰明英哲, 立心制行 自符於內訓列女傳諸書 味爽而興)”라고 하여, 이런 책이 부덕(婦德)을 함양하는 책임을 말했다.¹⁹ 이처럼 아내가 아닌 여성의 생애를 얘기하면서, 그 여성이 읽은 책을 거론하는 글은 많이 볼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기로 한다.

김육(金堉, 1580~1658)은 「고모 의인(宜人) 청풍 김씨 묘표」에서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슬기롭고 영특하였으며, 형제간의 우의가 돈독하였고, 베풀기를 좋아하였다. 문사(文史)를 섭렵하여, 어려서부터 언해(諺解)로 된 <소학>이나 <열녀전> 읽기를 좋아하였으며, 형제들이 글을 읽을 적에는 반드시 곁에 앉아 들으면서 어려운 것을 물었다(天性至孝 警悟超倫, 友兄弟尤篤 好施與, 涉文史 自少喜讀 諺解小學列女傳, 諸兄弟讀書 必旁聽而問難).²⁰

라고 하였다. 황경원(黃景源 1709~1787)은 「정부인에 추증된 한씨의 묘지명」에서

부인은 어려서 그 형제가 공부할 때 곁에서 경사(經史)의 문자를 들었다. <소학>에 들어 있는 구용구사(九容九思), 정자(程子)의 <사물잠(四勿箴)>, 주자(朱子)의 <소학제사(小學題辭)>와 <경재잠(敬齋箴)>, 범준(范濬)의 <심잠(心箴)>, 진백(陳栢)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같은 글인데, 이를 능히 외워서 익혔다. 조금 커서 문득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夫人幼時 從其兄弟受學者 旁聽經史文字, 如小學所錄 九容九思 程子四勿箴 朱子小學題辭及敬齋箴 范氏心箴 陳氏夙夜箴之屬, 皆能誦習之. 少長則輒自晦而不出人不得以知之).²¹

라고 했고, 「정경부인에 추증된 남씨의 묘지명」에서는, “부인은 7세 때 오빠 기명(紀溟)이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면, 문득 속으로 읽으면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몸가짐을 닦는 데에 미쳐서는 반드시 <내칙>과 <열녀전>을 좇아서 몸가짐이 조용하고 바르며 말과 얼굴빛이 온화하였다”라고 했다.²² 그리고 정종로(鄭宗魯, 1738~1816)는 「절부유인 계림 손씨 행록」에 다음과 같이 썼다.

태어나면서 병치레가 잦아, 침을 맞고 약을 먹느라 겨를이 없었지만, 여공(女工)과 언서(諺書)에 스스로 정통하였다. <열녀전> 등의 책을 읽을 때마다 여러 차례 감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매일매일의 생활에서는 한결같이 부녀자의 도리를 지켰다(生而多病 鍼藥不暇, 而女工諺書 自能精通. 每讀列女傳等書 未嘗不三復歎慕, 日用動靜 一遵閭範).²³

이상의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떠난 여성을 추모하는 글에서 언급되는 서적은 주로 <소학(小學)> <열녀전(列女傳)> <여계(女誡)> <내칙(內則)> 같은 책이다. 때때로 여성의 독서와 관련된 글에서 소

18 김신겸의 문집 『증소집(檜巢集)』 제9권에 「망실유인이씨행장(亡室孺人李氏行狀)」이 있는데, 위의 민우수가 쓴 대목과 거의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19 『동춘당집(同春堂集)』 제18권, 「숙부인동래정씨묘지명병서(淑夫人東萊鄭氏墓誌銘并序)」.

20 『잠곡유고(潛谷遺稿)』 제12권, 「고의인청풍김씨묘표(姑宜人淸風金氏墓表)」.

21 『강한집(江漢集)』 제18권, 「증정부인한씨묘지명(贈貞夫人韓氏墓誌銘)」.

22 『강한집(江漢集)』 제18권, 「증정경부인남씨묘지명(贈貞敬夫人南氏墓誌銘)」.

23 『입재집(立齋集)』 제47권, 「절부유인계림손씨행록(節婦孺人鷄林孫氏行錄)」.

설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여성의 소설 독서를 부정적으로 본다. 기존에 잘 알려진 내용은 다음 몇 가지이다.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은 오씨 부인을 추모하면서

근래에 부녀자들이 다투어 능사로 삼는 일은 오직 패설(稗說)을 숭상하는 것뿐인데, 날이 갈수록 더 많아져서 천여 종에 이르렀다. 왜가(僧家)는 이것을 정사(淨寫)하여 사람들에게 빌려주고는 그 값을 받아서 이익을 취하고, 부녀자들은 생각 없이 비녀나 팔찌를 팔거나 혹은 빗을 내서라도 다투어 빌려가서 그것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 음식 만들고 바느질해야 하는 책임도 잊어버린 채 이렇게 하기 일쑤다. 그런데 부인은 홀로 풍속이 변해가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겨, 여자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하고 남는 여가에 간간히 책을 읽었는데, 오직 『여사서』만이 규방(閨房)의 부녀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²⁴

라고 썼다. 여기서 채제공은 한글소설을 언급하지만, 오씨 부인이 시류에 편승해서 한글소설을 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사소절』에도 여자들이 한글소설을 빌려서 읽는 세태를 개탄한 내용이 나온다. 18세기 한글소설을 읽는 여성 독자에 관한 자료로 알려진 이학규(李學逵, 1770~1835)의 글을 하나 더 보기로 한다.

오늘날 비단옷 입은 부녀자들이 한글소설을 좋아하여, 등불을 켜서 불을 밝히고 깊이 빠져 읽는데, 마치 과거 공부나 집안일을 하는 것처럼 합니다. 아이들은 지각이 없으므로, 이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더라도, 이미 그 요사스럽고 황당한 말에 거의 빠져 있습니다. 하물며 조흔하는 풍속이 있으니, 이빨을 갈 나이에 이미 머리에 상투를 틀고, 골격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본 모습이 없

어지니, 어찌 애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²⁵

이학규의 이 글은, 어떤 사람에게 보내 편지의 한 구절이다. 이 편지의 내용은, 어린아이를 잘 기르고 가르치는 법에 관한 것으로, 잘 기르는 법 두 가지와 잘 가르치는 법 세 가지를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다. 이학규는 이 글에서 한글소설의 폐해를 지적했는데, 이때의 독자는 상층 여성들이다.

여성과 관련된 글에서 한글소설이 언급되는 것은, 한글소설이 여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말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숙기가 쓴 두 편의 제문 중 부인 완산 이씨의 탈상 때 쓴 제문에서 〈유씨삼대록〉을 언급한 것은, 그런 글과는 다른 차원이다.

유숙기는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부인을 생각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그가 의지하고 있던 사람인 조카 순(淳)이 죽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며, 이 조카를 부인이 〈유씨삼대록〉의 등장인물 백경에 비교했음을 회상했다. 유숙기가 제문에서 말하는 조카 순(淳)은 유언순(兪彦淳)으로, 유숙기의 형 유묵기(兪默基)의 아들이다. 유언순 항렬의 돌림자가 언(彦)이므로 돌림자는 빼고 순(淳)이라고만 말한 것이다.

유숙기가 아내를 회상하면서 〈유씨삼대록〉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은, 소설에 대한 가치평가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조카 유언순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한 말을 생각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글소설을 언급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굳이 〈유씨삼대록〉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유숙기의 한글소

25 今世綺紈婦女家 酷好諺讖小說, 焚膏繼晷 潛心暗讀, 有若業帖括 人家行事. 兒子無知 以爲真有如此故事, 縱或知其非眞 已爲其妖辭讖說 蕩動了八九分. 況俗尙早婚, 齒甫改卹 頭已變卍. 骨格未完 眞元枯亡, 豈不可哀乎耶? (『낙하생집(洛下生集)』 제10책) 이 내용은 이학규가 쓴 편지에 나오는 구절인데,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이 편지는 그가 귀양간 시기(1801~1824)에 쓴 편지이지만, 소설에 관한 내용은 귀양 가기 이전에 서울에 있을 때 본 상황을 기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18세기 말의 한글소설 독자에 관한 내용이다.

24 『번암선생집(樊巖先生集)』 제33권, 「여사서서(女四書序)」.

설에 관한 태도가 18세기 중반에 일반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것인지는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4. 허구와 현실

앞에서 유숙기가 쓴 아내의 제문 두 편을 제시한 이유는, 기존의 고소설 관련 자료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유숙기가 <유씨삼대록>을 언급한 대목을 통해, 그의 아내 완산 이씨가 <유씨삼대록>을 읽었고, 그 내용을 남편에게도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대부의 아내가 한글소설을 읽었으며, 그 소설의 내용을 남편에게 얘기했고, 또 남편은 그런 일을 아내의 제문에 넣어 후대에 전했다는 일련의 사실은, 18세기 전반기의 한글소설사를 엮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유숙기의 제문은 단순히 <유씨삼대록>이 완산 이씨가 세상을 떠난 1746년 전에 읽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만은 아니다.²⁶

완산 이씨는 어디서 어떻게 <유씨삼대록>을 구해서 읽었는가?

완산 이씨가 한글소설을 읽을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시집의 조카를 소설의 등장인물과 비교할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로 소설을 읽어야 가능한가?

이밖에 고소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런 문제 모두를 다 논의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설 속 허구의 인물을 현실의 인물과 비교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로 한다. 소설 <유씨삼대록>에 등장하는 유백경과 유숙기의 조카 유언

순이 소설과 현실에서 어떤 인물이었는지 보는 정도에서 그치기로 한다.

4.1. 유씨삼대록의 유백경

유숙기가 <유씨삼대록>을 언급한 대목은 부인의 탈상 때 쓴 제문에 들어 있다. 부인이 돌아간 후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조카 언순이 죽었기 때문에, 유숙기는 대단히 실의에 빠져서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제문에서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내가 조카 언순을 <유씨삼대록>의 유백경과 비교했던 일을 떠올린다. 그런데 <유씨삼대록>에서 유백경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은 아니다. 유백경은 유흥의 아들인데, 유흥이 형 유연에게 양자로 보냈다. 유백경이 등장하는 대목을 <유씨삼대록> 몇몇 이본에서 보기로 한다.²⁷

시의 승상의 데 흥이 재복의 덕거헛였다가 도라오매 일가의 희기 농혹하고 승상이 상셔의 위인을 낮바흐미 아니로디 일단 화목하는 주의 이셔 흥의 츠즈 빅경을 계후하여 가권을 빅경의게 맞져 흥의 맛음을 즐겁게 하니 상세 야야의 뜻을 밧즈와 가스의 흥 일도 참여흐미 업시 다 빅경의게 던흐고 계부의 과악을 비록 아나 모르는데시 공경하여 셤기를 야야 밧치흐고 형을 공경하며 우익흐미 지극하니 흥이 쏘흔 효순함을 스랑하며 빅경은 인효 군직라 서로 화목하여 가년의 흥 덤미 진흐미 업스믄 상셔의 보익흐미 만터라(국립중앙도서관 20권본 제1권 35~36쪽)

이적의 승상의 제 뉴흥이 계복의 적거헛였다가 도라와 일가의 깃분 기운이 농혹하고 승상이 상셔의 기질을 낮바흐미 아나 일단 화목하는 주의 잇셔 흥의 츠즈 빅경을 계후하여 가권을 빅경의게 맞져 흥의 맛음을 즐겁게 하니 상세 야야의 뜻을 밧다 가스의 흥 일도 참여치 아나 다 빅경을 맞지고 계부의

26 이 문제를 다룬 한길연은, “완산이씨가 <유씨삼대록>에 대해 말하려면 이미 그녀가 그 이전에 이 작품을 읽었어야 한다. 완산이씨는 늦어도 1746년 이전 시기에는 <유씨삼대록>을 읽었던 것인데, 앞뒤 정황상 1730년 이전 시기에 이 작품을 읽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유씨삼대록>의 창작시기는 늦어도 18세기 초반, 빠르면 17세기 후반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했다. 한길연, 앞의 논문 24쪽.

27 이 논문에서는 <유씨삼대록>의 내용 전체를 다루지 못할 뿐 아니라, 이본도 따로 정리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대목의 몇몇 이본을 검토함으로써 이본의 상황도 보기로 한다.

전 과악을 아나 전혀 모르는 체하여 일단 화기 아연하니 흥이
또한 그 손순흔물 사랑하며 빅경은 어진 군지라 서로 화목하
여 가내의 흥 점 미진하니 업더라(장서각 20권본 제1권 21~22장)

이적의 승상이 제 흥이 계복의 적거하였다가 도라 일가의
깃분 기운니 융흡하고 승상이 상서의 기질을 낮바하니 아녀
일단 화목한 주의 잊서 흥이 츠츠 빅경을 기휘하며 가권을
빅경에게 온전하여 흥이 마음을 즐겁게 하니 상서 야야의 뜻
을 바다가스의 흥 일도 참여를 아녀 빅경을 맞기고 빅경을 극
진니 공경하여 즈제이 드리울 못 맞칠디 업시며 기부이 이정
과익을 비록 아나 전혀 모르난 친하여 일단 화기 아연하여 다
승상과 흥지로 하니 흥이 또한 온순흔물 사랑하며 빅경은 어
진 군지라 서로 화목하여 가내의 흥 점 미진하니 업서 또한 승
서의 보익하니 만터라(국립중앙도서관 6권 낙월본 제1권 57~58쪽)

이적의 승상의 데 흥이 계복의 적거하였다가 도르와 일가
의 깃분 기운이 융흡하고 승상이 상서의 기질을 낮바 아나 일
단 화목한 주의 잊서 흥의 츠츠 빅경을 계후하여 다 권을 빅
경에게 온전하여 흥의 마음을 즐겁게 하니 상서 야야의 뜻을
바다가스의 흥 일도 참여치 아나 다 빅경을 맞디고 빅경은 국
단이 공경하여 즈녀의 도리 못 맞춘디 업스며 계부의 이전 과
악을 비록 아나 전혀 모르는 체하여 일단 화기 아연하여 다 승
상과 흥가지로 하니 흥이 또한 그 즈습흔물 사랑하며 빅경은
어진 군지라 서로 화목하여 가내의 흥 점 미진하니 업스는 또
한 상서의 보익하니 만터라(병헌정사 19권본 제1권 70~71쪽)

유백경이 처음 등장하는 이 대목의 내용은, 사실상 유
우성의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에피소드이다. 유우성은 승
상 유연의 아들로 상서의 벼슬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 유흥이 귀양살이를 마치고 돌아오자, 아버지 유
연이 유흥의 아들 유백경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 대를 잇
게 했다. 집안의 모든 권세가 유백경에게 돌아가게 되었지
만, 유우성은 조금도 이를 개의치 않는다. 위에서 본 네 종

의 이본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장서각 20권본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집안이 화목하게 된 것은 유우성이 유백경을
도와주었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유연이 백경을 자신의 양자로 삼은 이유는, 방탕한 동
생 유흥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네 종의
이본에서 이 대목을 보면,

흥의 츠츠 빅경을 계후하여 가권을 빅경의기 맞져 흥의 마
음을 즐겁게 하니(국립도서관본)

흥의 츠츠 빅경을 계후하여 가권을 빅경의기 맞져 흥의 마
음을 즐겁게 하니(장서각본)

흥이 츠츠 빅경을 기휘하며 가권을 빅경에게 온전하여 흥
이 마음을 즐겁게 하니(낙월본)

흥의 츠츠 빅경을 계후하여 다 권을 빅경에게 온전하여 흥
의 마음을 즐겁게 하니(병헌정사본)

라고 하여 거의 글자가 일치하는데, 전사하는 과정에서
'계후(繼後)'를 '기휘'라고 쓴다든가, '가권(家權)'을 '다 권
(權)'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고, 말긴다는 의미인 '맞
져'가 '온전하여'로 바뀐 것이 있다.

작품에서 유백경은 양아버지 부부가 돌아간 이후에 집
안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대
목을 보면, “백경이 가권(家權)을 총집(總執)하나, 부중(府
中)의 초중(超重)한 영화는 상서께 있으나, 관록(官祿)에 드
는 것과 상사(賞賜)하시는 금백(金帛)을 추호도 사사로이
아니하여 다 백경에게 드리고”(국립도서관 20권본)라고 하
였다. 그러므로 실제로 집안의 권세는 유백경이 아닌 유우
성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에서 유백경은 도덕군자로
묘사되어 있는데, 유백경은 벼슬길에는 나가지 않았다.

유백경은 “이름이 조야(朝野)에 나타나 천자가 여러 순
청현화직(淸顯華職)으로 부르시고 재상(宰相)이 자주 천거
하되, 정한 뜻이 마침내 벼슬에 나아가지 아니코 정히 기
산(箕山) 영수(潁水)의 고의(古意)를 따르는지라. 상이 아름

답게 여기사 도호(道號)를 운수선생(雲水先生)이라 하여 사림(士林)의 으뜸을 삼으시니, 사서(士庶)의 우러르는 바가 왕공(王公)의 위러라"라고 하여, 천자로부터 '운수선생'이라는 도호를 받는다. 작품에서 유백경은 운수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 더 등장하는 정도로 끝난다.

운수선생이 등장하는 대목 한 군데를 몇몇 이본에서 보기로 한다.

신부 폐백하는 네를 못고 좌의 나아가니 좌둥이 다 칭찬하고 하례하되 승상이 부인으로 일점 회식이 업고 도로혀 근심하는 빗치 잇는디라 운수선생이 무려 왕 신부의 지미 운치 그장 희한하니 현대와 현수의 불안하든 아니 세형을 미안하미나 승상 왕 쇼데는 사름의 식을 보디 아냐 덕을 취하느이다 선싱 왕 신부 절의 그장 높흐니 그 덕을 쓰흔 알니로다 승상 왕 왕교랑 가운데 다 절이 느즌 거시 아니로되 유한정명흔 숙네 아니니 당금 진양공쥬 진짓 숙네어늘 세형이 그릇 숙녀를 염고하고 운화의 식을 취하엿는디라 엇디 불헿치 아니하리 잇고 선싱이 점두 왕 현대의 붉으미 사름의 미출 배 아니라 하더라(국립중앙도서관 20권본 제2권 22~23쪽)

폐백지네를 펼하미 신부 좌의 나아가니 좌둥이 다 칭찬하되 승상부부는 일점 회기 업스니 좌상의 운수선생이 문왈 금일 신부를 보니 즈약하되 세상의 희한하거늘 현대와 슈슈의 불열하미 모르미 세형을 칩하미나 승상 왕 쇼데는 화모를 취치 아냐 그 덕을 취하옵스니 당금 진양공쥬는 진짓 숙네라 세형이 그릇 숙녀를 넘고하고 운화의 식티를 취하느니라 엇지 불헿치 아니리잇고 선싱이 점두무언이러라(장서각 20권본 제3권 9~10장)

신부 폐백하는 예을 맛고 좌의 나아가니 좌둥이 다 칭찬하례하되 승상과 부인이 일점 회기 업서 도로혀 깃거안인는 비치 니스니 좌상의 운수선생이 무려 왕 신부의 지미 요라정정하미 희한하니 현재와 슈슈 불안하든 안니 세형을 칩하미나

승상 왕 쇼데는 사름의 식을 보지 아냐 그 덕을 취하미라 선싱 왕 신부 절의가 가장 높흐니 그 덕을 가히 알니로다 승상 왕 왕교랑과 가운데 다 절이 업슨 거시 아니로되 그 유한정명흔 숙네 아니니 당금의 진양공쥬 진짓 숙네어늘 세형이 그릇 성녀를 염고하고 운화의 식을 취하엿는디라 엇지 불헿치 아니리오 선싱이 점두 왕 선지라 현대의 불그미여 사름이 맛지 못홀 비로다 하더라(연세대학교 도서관 19권 낙질본 제3권 48~49장)

폐백하는 네를 못고 신부 좌의 나아가니 좌둥이 다 칭찬하례하되 승상과 니부인이 한 점 회기 업고 도로혀 깃거안인는 빗치 잇는디라 좌상의 운수선생이 무려 왕 신부의 지미 운치 그장 희한하니 현대와 현수의 불안하든 아니 세형을 칩하미나 승상 왕 쇼데는 사름의 식을 보디 아냐 그 덕을 취하미라 선싱 왕 신부 절의 그장 높흐니 덕을 가히 알니로다 승상 왕 왕교랑 가운데 절이 업슨 거 아니라 그 유한정명흔 숙네 아니니 당금에 진양공쥬 진짓 숙네어늘 츄익 이긋튼 성네를 염고하고 운화의 식을 취하났는디라 엇디 불헿치 아니리오 선싱이 점두 왕 선지라 현대의 붉으미여 사름의 맛디 못홀 배로다 하더라(병현정사 19권본 제2권 150~151쪽)

이 대목은 유우성의 아들이 천자의 부마가 되었는데, 공주가 허락하여, 앞서 약속한 장상서의 딸을 또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대목이다. 유우성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데, 유백경(운수선생)은 동생의 이런 높은 뜻에 감탄한다는 내용이다. 네 종 이본의 이 대목을 보면, 장서각 소장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은 대체로 같은 내용이다. 운수선생(유백경)이 신부의 절(節)을 얘기하자, 승상(유우성)이 왕교랑과 가운데의 절(節)을 얘기하는 내용은 장서각 소장본에만 빠졌다. 그런데 운수선생이 감탄하는 구절을 네 이본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선싱이 점두 왕 현대의 붉으미 사름의 미출 배 아니라 하더라(국립도서관본)

선싱이 점두 왈 현대의 붉으며 사름의 미출 배 아니라 흐
더라(장서각본)

선싱니 점두 왈 선지라 현대의 불그미여 사름이 맛지 못홀
비로다 흐더라(연세대본)

선싱이 점두 왈 천지라 현대의 붉으며 사름의 맛디 못홀
배로다 흐더라(빙현정사본)

이 부분은 국립도서관본과 장서각본이 같고, 연세대본과 빙현정사본이 같아서, 마치 두 계열인 것으로 보이지만, 한 대목의 자구가 일치한다고 해서 같은 계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유백경이 등장하는 두 대목의 비교만으로는 <유씨삼대록>의 이본 계통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전하는 <유씨삼대록>의 여러 이본의 줄거리는 대체로 같다고 볼 수 있다.

완산 이씨가 읽은 <유씨삼대록>이 현재 남아 있는 여러 이본과 아주 다르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므로, 완산 이씨가 알고 있는 유백경은 앞에서 본 여러 이본에 나오는 내용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유백경은 작품의 중간쯤에서 49세의 나이로 죽는데, 이 소설이 3대에 걸쳐 일어난 일을 서술했으므로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유백경은 작품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도 아니고, 또 자주 등장하지도 않는 것은 분명하다.

4.2. 유숙기의 조카 유언순

유숙기가 아내의 제문에서 조카를 언급한 이유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유숙기가 조카 유언순을 의지하면 지냈기 때문이다. 조카가 죽은 후, 유숙기는 자신이 더욱 외롭게 되었다고 말하며, 완산 이씨가 조카를 <유씨삼대록>의 유백경과 비교했던 일을 떠올렸다. 제문의 이 부분을 다시 보기로 한다.

내가 숙인을 잃은 후로 더불어 사는 사람은 오직 조카 순
(淳) 한 사람뿐이었는데, 불행이 중도에 죽어서, 나는 이 세상

에서 외롭게 되었습니다. 숙인은 일찍이 그를 <유씨삼대록> 중의 백경(伯敬)이라는 사람과 비교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또 이 조카가 나이는 어려도 능히 몸을 잘 삼가고 조심하니 특이하다고 하며, 틀림없이 오래 살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지요. 집안의 운수가 장차 망하려는지, 저처럼 어진 사람은 마땅히 오래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죽은 후에 나의 신세는 더욱 외롭게 되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완산 이씨가 유언순의 어떤 면을 <유씨삼대록>의 유백경과 비교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소설 속의 인물 유백경이 매우 고상한 인물로 묘사된 것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유언순이 남긴 글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겹산집』에는 유언순 관련 글 세 편이 있는데, 하나는 「제종자언순문(祭從子彦淳文)」으로 유숙기가 쓴 조카의 제문이고, 다른 두 편은 유언순에게 보낸 편지이다. 세 편의 글을 통해 유언순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보기로 한다.

기계 유씨(杞溪俞氏) 족보에 의하면, 유언순은 자(字)가 경명(景明)이고, 을미년(1715)에 태어났다.²⁸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강한 체질은 아니었으나, 기질이 강하고 총명하였다. 유숙기는 제문에서 여러 차례 유언순이 재주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에게 하는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숙기는 조카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너는 태평한 시대에 고관대작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어지러운 시대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절조를 지키며 목숨을 바쳐 의리를 지키는 지사가 될 것을 생각했다. 문장은 진부한 것을 쓰더라도 새롭게 했으니, 반드시 만고와 사마천을 모범으로 삼았으며, 도(道)를 구하는 것에서는 몸을 편안히 하고 명(命)을 바르게 하였으니, 끝내는 정자와 주자로 귀결되기를 바랐다. 경사자집(經史子集)과 패관소설을 많이 읽고 잘 기억하여 널리 고찰하고 두루 통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시와 문장,

28 기계 유씨 족보, 1738년 간행본, 장서각 소장.

신선과 불교, 의학과 점복, 산수(算數) 등을 모두 정밀하게 탐구하려고 했다. 이런 것은 내가 가진 뜻이 뛰어나고, 그 범위가 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세에 태어나서, 고금을 뛰어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음을 누가 알겠느냐. 너는 몇 척의 작은 몸에 천지를 모두 담고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었구나.²⁹

죽은 사람에 대한 글에서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숙기는 조카의 독서 범위에 반고와 사마천의 역사서, 정자와 주자의 도학서, 경사자집 등을 언급하고, 여기에 패관소설까지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신선과 불교까지도 조카가 정밀하게 탐구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술했다. 유숙기가 이렇게 쓴 이유는, 조카의 독서 경향을 사실대로 기술했기 때문일 텐데, 여기서 유숙기의 독서에 관한 생각을 엿볼 수도 있다. 유숙기가 패관소설이나 불교 서적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숙기는 부인의 제문에서도 의지하던 조카가 죽은 후에 외로워졌다고 말했는데, 조카의 제문에도 “당장의 여러 가지 일과 죽은 후의 여러 가지 일을 모두 너에게 맡기려고 했다”라는 말이 들어 있다. 이 말은 유숙기가 조카를 어느 정도 의지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유숙기의 조카 언순은 완산 이씨의 탈상하던 해인 1748년 윤7월 6일에 죽었고, 이 제문은 8월 15일에 썼다. 그리고 완산 이씨 탈상 때 제문은 8월 19일에 썼다. 두 편의 제문은 며칠 사이에 쓴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두 사람에 대한 여러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을 수 있다.

유언순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유숙기가 쓴 두 편의 편지가 있다. 하나는 무오년(1738)에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편지 쓴 날짜를 알 수 없는데, 비슷한 시기로 보인다. 무오년에 유숙기는 43세로 공조 좌랑이 되었다가 금구 현령으로 외직에 나갔다. 무오년에 쓴 편지는 유숙기가 어떤 사건에 관해 얘기한 것이므로, 유언순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 날짜가 없는 편지는, 유숙기가 조카에게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리고 과거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 등을 얘기한 내용이 들어 있다. 유숙기는 조카에게 과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과거를 말했는데, 만약 너의 글 수준이 낮다면, 나 또한 여러 사람이 분주히 하는 일을 따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겠다. 그러나 너의 글이 불만한 수준이니, 연습하면 못 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능력에 따라 과거 문장을 공부하여 어머니의 바라는 마음에 부응해야지, 여러 말을 하며 안 보려고 하는가. 빈궁과 영달이 운명이라는 말도 또한 맞는 말이 아니다. 세상은 과거 시험으로만 사람을 뽑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스스로 영달할 수는 끝내 없는 것이다. 우스운 일이다. 우스운 일.³⁰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유언순은 상당한 글쓰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숙기는 이러한 조카의 태도를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응시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세상은 과거에 급제해서 영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는 말만 할 뿐이다. 유언순은 34세라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을 때까지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언순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으므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가 죽은 지 50여 년 후에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에 효자문이 세워졌는

29 時平而不願作紅青拖紫之人，世亂而思欲爲伏節死義之士。爲文則用腐化神，必欲模楷乎班馬，求道則安身立命，終欲歸宿乎程朱。記覽之富，則經史子集稗官小說，靡不博考而旁通。包羅之廣，則詩騷仙釋醫卜算數，皆欲深究而精研。此非汝志尚之卓絕，範圍之濶大者乎。孰知其生乎衰季之下，有此邁古超今之意。眇然數尺之軀，藏得囊天括地之胃哉。(『검산집』 제12권, 「祭從子彥淳文」)

30 科擧云云，汝若文不逮，則吾亦豈欲其隨衆奔趨，而汝文足可觀，習之則無不能也。故欲其隨分治時文，以副慈闈懸望之心也，更何須多爲辭而退託耶。窮達有命之說，亦非的論，世只以科擧取人，終無有臥而自達之理也。好笑好笑。(『검산집』 제6권, 「答從子彥淳」)

데, 근래에 이 효자문을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로 옮겨서 새로 지었다. 1933년에 간행된 진천읍지인 『상산지(常山誌)』에는 유언순의 효행을 다음과 같이 기술해놓았다.

유언순은 기계(杞溪) 사람으로 호(號)는 태효재(太孝齋)이다. 계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고, 집이 가난했으나 물심양면으로 극진히 봉양했다. 모친이 병에 걸려 장차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언순은 음식과 치장을 그만두고 단을 모아 하늘에 기도했는데, 23일이 되자 병이 나았다. 경향(京鄕)의 진신(摺紳)과 유생(儒生)들이 함께 글을 올려 외쳐서 조정에 들렸다. 순조 갑자년(1804)에 정려(旌閭)하라는 명령이 내렸다.³¹

『상산지』 이전의 진천읍지는 더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 후에 나온 진천읍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좀 더 확장된 버전으로 전해진다.³²

5. 결론

언제부터 한글소설의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한글소설이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고소설 연구자들은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소설이라든가, 또는 <설공찬전>이 한글로 쓴 가장 오래된 소설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홍길동전>은 19세기 작품이고, <설공찬전>은 한글로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주장은 한글소설의 발생을 연구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자는 한글 고소설의 발생과 변천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³³

- ① 궁중에서 중국소설을 번역하는 시기.
- ② 번역소설을 읽으면서 얻은 소설의 이해를 바탕으로 궁중에서 한글소설을 창작하는 시기.
- ③ 번역 및 창작 한글소설이 민간 상류층으로 퍼지는 시기.
- ④ 세책집이 생기면서 한글소설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시기.
- ⑤ 세책집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식의 한글소설이 창작되는 시기.
- ⑥ 세책집에서 창작한 한글소설을 축약한 방각본 소설이 나타나는 시기.
- ⑦ 세책과 방각본을 저본으로 활판본 고소설이 만들어지는 시기.

위의 일곱 단계 중에서 뒤의 네 단계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할 수 있지만, 앞의 세 단계는 정확하게 어느 때라고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유숙기가 아내 완산 이씨의 제문에서 <유씨삼대록>을 얘기한 내용은, 세 번째 단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숙기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 완산 이씨의 제문에서 한글소설 <유씨삼대록>을 언급한 것은, 부녀자가 한글소설을 읽는 것이 크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준다. 위의 7단계 중 네 번째 단계가 되면, 부녀자들이 한글소설을 읽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단계에서 민간 상류층이라고 말한 것은, 왕실을 비롯한 왕실과 가까운 사이의 여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초기 한글소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료에 언급된 여성들은 대부분 왕실과 관련이 있다.

유숙기의 부인 완산 이씨의 아버지는 이관명(李觀命, 1661~1733)이고, 어머니는 덕수 장씨(德水張氏)이다. 어머니

31 이범관, 『상산지』, 1933. 유숙기의 형 유묵기(俞默基, 1691~1730)의 첫 부인은李明승(李明升)의 딸이고, 후취 부인은 조경세(趙經世)의 딸인데, 유언순은 첫 부인이 낳았다.

32 진천군지 편찬위원회, 『진천군지』, 진천군, 1994.

33 이윤석, 「한글 고소설의 탄생과 유통」, 『인문과학』 105,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니 덕수 장씨는 장선징(張善徵, 1614~1678)의 딸인데, 장선징은 장유(張維, 1587~1638)의 아들이다. 장선징의 누이는 효종의 비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1674)이므로 유숙기 부인 완산 이씨의 외할아버지가 인선왕후의 오빠이다. 고소설 학계에 잘 알려진 것처럼, 인선왕후가 딸에게 보낸 한글편지에는 여러 편의 소설이 언급되어 있다. 완산 이씨가 한글소설을 읽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완산 이씨가 왕실과 연결되는 어떤 고리가 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약간 언급하는 데 그친 민우수의 고모는 인현왕후(仁顯王后, 1667~1701)의 동생이다. 민우수의 고모는 이장휘의 아내이고, 이장휘의 어머니 황부인은 황일호의 딸이다. 황부인이 한글소설을 좋아해서, 민우수의 고모가 소설을 많이 베끼기도 했다는데, 이런 것도 고모의 언니가 왕후였다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고소설 연구자들은, 연구 초기부터 소설 긍정론과 배격론이라는 이름으로 사대부들이 소설관을 다뤘다. 이런 연구에서는 한글소설과 한문소설의 구분이 없이 모든 서사문학을 같은 범주로 생각했으므로, 중국소설 <삼국지연의>, 한글소설 <춘향전>, 박지원의 <호질> 등을 같은 기준으로 묶었다. 그러나 한글소설은 중국소설이나 조선인이 쓴 한문단편과는 다른 장르의 문학작품이다. 그러므로 한글소설은 따로 그 발생과 전개를 연구해야지, 다른 서사문학과 같은 범주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소설 긍정론과 배격론 논의에서 흥미 있는 점은, 소설을 배격한다고 알려진 논의의 대부분은 여성이 한글소설 읽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고, 소설을 긍정한다고 알려진 논의는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한글소설을 구하느라고 애쓴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는 것이다.³⁴ 여성은 언젠가는 늙은 어머니가 될 텐데, 늙은 어머니를 위해 소설을 구해오는 것은 소설 긍정론이고, 젊은 여성이 소설을

읽는 것을 비판한 것은 소설 배격론이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일까? 기존의 논의에서 소설을 긍정하느냐 배격하느냐로 나누어 본 것은, 소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여성을 보는 시각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숙기가 아내의 제문에서 소설을 언급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흥미로운 문제이다. 유숙기의 한글소설에 대한 태도는, 소설을 긍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나의 문제가 아니라, 유숙기의 집안에서는 소설이 일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사실이 1748년 무렵 조선에서는 한글소설이 사대부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읽혔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다. 왕실과 관련이 있는 집안에서만 일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유숙기의 아내 완산 이씨가 유숙기의 조카 유언순과 <유씨삼대록>의 등장인물 유백경을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은, 왕실과 관련이 있는 집안에서는 한글소설 독서가 일상적이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34 앞에서 예로 든 체제공, 이덕무, 이학규 등이 18세기 후반의 한글소설을 비판한 내용은, 고소설 학계에서 소설 배격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김만중, 조성기, 조태억, 권진응 등이 어머니를 위해 소설을 구해온 것은 소설 긍정론으로 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한국고전종합DB

이범관, 『상산지』, 1933.

진천군지 편찬위원회, 『진천군지』, 진천군, 1994.

2. 단행본 및 논문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관계윤리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19.

김수진, 「죽어야 사는 여자: 이인상과 김중수의 여성 제문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82, 한국한문학회, 2021.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1』, 태학사, 2001.

_____,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2』, 이희, 2005.

박무영,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연구』 32, 한국한문학회, 2003.

유미림, 「조선 시대 사대부의 여성관: 제망실문(祭亡室文)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5), 2005.

정병설, 「한글소설이 세상을 현혹한다. 조선시대의 소설 향유」, 『놀이로 본 조선』, 글항아리, 2015.

한길연, 「대하소설의 자료사적 궤적과 공공화 방안: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Abstract

Korean Old Novel *Yussi-Samdaerok*, Yu Suk-gi, and His Wife Lady Lee

Lee, Yoon-Suk | Yonsei University

Yu Sook-gi(俞肅基, 1696~1752) had never held a high government post, nor is he a man of outstanding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he has become a notable figure in the study of Korean old novel. In his eulogy for his wife, who passed away in 1746, he mentioned the Korean classic fiction *Yussi-Samdaerok* (Story of three generations of the Yu family). In his eulogy, Yu Sook-gi noted that his wife compared the character in the novel to his nephew. This record serves as evidence that *Yussi-Samdaerok* was written before 1746. Since there are very few data on classical novels from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this data needs to be examined in more detail by researchers in the future. In this paper, I translated two eulogies written by Yu Sook-gi, in order to make it easier for researchers to access the entire contents. Furthermore, through some inference, I discuss the possibility that, until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the class of people who could read classical novels were women from noble families close to the royal family.

Keywords Korean old novel, *Yussi-Samdaerok*(Story of three generations of the Yu family), Yu Sook-gi(俞肅基, 1696~1752), Yu Suk-gi's wife Lady Lee(李氏, 1697~1746), Yu Suk-gi's nephew Yu Eon-soon(俞彦淳, 1715~1748)